



협회 회장단, 국립현충원 방문 '재도약 다짐'

장흥순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 30여 명은 1월 5일 오전 11시 국립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에 참배하고 호국영령 앞에서 벤처부활 의지를 다짐했다.

협회 회장단은 2005년 벤처 재도약 원년을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벤처가 한국경제의 희망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회장단은 현충원 방문 후 임원워크숍을 개최하고 벤처에 대한 사회적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춰 올해 사업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협회의 주요 사업추진 방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표명에 따라 사회적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우선 벤처윤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벤처기업의 윤리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벤처 패자부활제 도입에 따른 평가기관으로서의 운영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오는 2월 말 정기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벤처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일섭)는 지난 1월 4일 협회에서 장흥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 패자부활 프로그램>의 1차 도덕성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따른 보고 및 운영방안과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벤처윤리위원회 임의회의'를 개최했다



▲ 협회 조현정 부회장은 1월 8일 KBS 심야토론 특집방송 '2005,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시다'에 패널로 참석해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부회장은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벤처기업의 생태계 복원이 중요하다"며 2만불 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벤처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사랑 벤처릴레이운동>

마흔다섯번째 주자 태화일렉트론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 마흔다섯번째 주자로 태화일렉트론(대표 신원호)임직원이 참여했다. 태화일렉트론은 LCD관련 장비의 국산화를 목표로 지난 95년 설립한 반도체 및 LCD 장비 제조업체로 LCD 오븐장비와 세정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신대표는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 참여와 함께 직원들의 제의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후원도 시작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참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